

# 전 현직 의원·시장 '인물 대 인물' 격돌 구도

## Report 총선 중요 격전지 집중분석 - ②익산 갑 을

### 당 지지도가 당락 결정 최대 요인 전망

익산지역은 전북 10개의 선거구 중 당 지지도가 이번 선거 후보들의 당락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비추진다. 인물 대 인물의 구도는 한쪽으로 무게추가 쏠리지 않을 만큼의 중량감을 갖는 후보들로 대진표가 짜여진 데다 익산시장 재보궐선거까지 치뤄지면서 총선 후보와 지자체장 후보가 한배를 탄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한당에서 총선과 지자체장을 모두 독식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따라서 당 대 당 구도를 인식하고 당의 조직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것이 익산지역 필승의 전략이라는 게 정가 중론이다.

▲익산 갑  
익산갑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의 이춘석 후보와 국민의당 이한수 후보의 한판 승부가 최우선 관전포인트다.

이춘석 후보는 지역 내 패권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현역의원으로선 선봉전에 위치한 바, 익산 내 野 대 野의 선거 구도를 이끌어 갈 역할을 해야하는 입장

이다.

그러나 그에 맞서는 국민의당 이한수 후보 기세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춘석 후보가 KTX선상역사, 국립박물관 승격, 익산국도청 이전 백지화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선 현역이라는 프리미엄이 있다면 이한수 후보는 민선 4.5기 익산시장과 제6.7대 전북도위원을 지낸 관록으로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그만큼 익산 시민들에게 익숙한 인물이다.

더민주당 입장에서는 익산지역 전략공천 시비로 불만이 터져 나온 터라 이춘석 후보의 여유있는 구도를 통해 익산 내 더민주당의 바람을 불어주길 바라지만 이 둘의 박빙의 승부가 상황을 녹록치 않게 만들고 있다.

이한수 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 후보들의 지지세를 결집해야 하는 과제와 함께 과거 익산시장 선거당시 새정연(더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낙선한 점 등의 약점등을 보완할 과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둘의 틀바루기 사이에서 서울강북경찰서장을 지냈던 새누리당의 김영일

후보와 민주노동당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중량감을 세운 민중연합 전권회 후보가 꾸준히 지지세력을 끌어모으고 있다.

김 후보는 경찰청, 재경부 등 고위공무원을 지낸 경험과 여당으로서의 인맥을 바탕으로 익산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전 후보는 알량한 기득권이 아닌 서민의 편에 서서 썩고 무능한 정치를 청산하겠다는 역사문화, 농업을 연계한 익산 특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황세연 후보도 변화된 익산을 내세우며 호시탐탐 금배지를 노리고 있다.

▲익산 을  
전정희 의원(국민의당, 익산시)의 더민주당 컷오프, 더민주당의 한병도 후보 전략공천, 국민의당 조배숙 후보의 경선 승리를 통한 4선 도전.

궂직궂직인 이슈가 많았던 지역이만큼 익산은 전북내에서도 손꼽히는 격전지이다. 이 지역 역시 한술집을 먹었던 한 후보와 조 후보의 '피하고 싶은 박매치가 최대 관전포인트'다.

먼저 더민주당 한 후보는 더민주당에서 당초 경쟁력 있는 후보자로 평가 전락공천설이 술술 나왔던 후보이다.

그는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으며 현 노무현재단 자문위원으로 익산시민들과 꾸준한 공감대를 형성해 온 인물이다.

국민의당 조 후보는 16~18대 내리 3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매우 능력있는 정치

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 후보는 지난번 뺏긴 공천권을 이번 에 되찾아옴으로써 본선까지 그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기세가 호기롭다.

강 대 강으로 맞붙은 두 후보에겐 공통된 해결 과제가 있다.

바로 공천 시 흩어진 표심을 모아야 한다는 것. 한 후보는 익산갑 출마를 고집해 이춘석 후보와의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후 중앙당으로부터 익산을 지역 후보로 공천받고 같은 당 후보들로부터 '뿔뿔마키시 전략공천'이라는 질타를 받는 등 당의 조직력을 흐트린 모양새이다.

조 후보는 같은 지역 3선의원이라는 중량감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지만 경선 2위를 한 전 의원의 지지세를 결집시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때문에 두 후보의 당락 역시 익산 내 당 지지도가 큰 몫을 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새누리당은 익산 현안 사업 중 하나인 미륵사지 석탑 복원 등 백제문화 부흥을 이끌어 낼 적임자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지낸 박종길 후보를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정의당 1.2기 사무총장을 지낸 권태홍 후보와 현 익산 농업인대학교 친환경농업 6차산업 7기 회장을 맡고 있는 무소속 이석권 후보가 익산을 꾸준히 지지세를 모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특별취재반

## 도내 총선 후보자 등록... 본격 레이스 시작

### 오늘 마감...50여명 등록 예상 평균 5대1 경쟁률 보일 듯

4·13 20대 총선이 24·25일 양일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다.

공식선거운동은 오는 31일부터 시작이지만 예비후보들은 후보로 신분이 바뀌면서 유권자들을 만나게 된다.

제20대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인 24일 전북에서 출마하는 주요 후보들이 등록을 마쳤다.

전주를 선거구에서는 정운천·최형재·장세환후보가 전주방에서는 김성진·김성주·정동영 후보 등이 이날 오전 일찌감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로 등록했다.

이상직 현역의원을 물리친 더민주당 최형재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 박근혜정권을 거치면서 빈부격차 심화로 시민들의 삶은 무너졌고, 민주주의는 거꾸

로 가고 있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당과 함께 무너진 시민의 삶을 지켜내고 시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민주주의를 복원 하겠다"고 필승의 의지를 밝혔다.

한편 도내 10개 선거구 후보는 총 50여명으로 약 5대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총선 후보 등록은 25일까지 계속된다.

【특별취재반

### 익산지역 택시기사 50여명 무소속 이석권 후보 지지 선언

익산지역 택시기사 50여명 희망찬 익산의 미래를 위해 무소속 익산(을) 이석권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 선언했다.

24일 익산지역 택시기사 50여명 무소속 이석권 국회의원 후보(익산 을)를 예비후보를 지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택시기사 일동은 "우리는 어느 패당에도 속하지 않은 우리와 같이 울고 웃었던 시민인 이석권을 당당히 지지한다"면서 "90살의 노부모를 모시고 간병하며 낯을 지 세우는 효자, 체육관 임대료를 못내 눈물을 흘렸던 소시민, 논농사로 몇 번이고 장화를 갈아 신던 농부, 이장의 신분으로 오로지 옳은 일만 좇아 다녔던 바보 같은 사람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이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 이마속 전주시의원 국민의당 입당 '장세환 후보선거운동 돕겠다'

전주시의회 이마속 의원(전주 호재3,4동)은 24일 국민의당에 입당해 장세환 전주를 국회의원 후보를 돕겠다고 밝혔다.

무소속이었던 이마속 전주시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당 입당을 계기로 수권정당이 되도록 하는데 헌신할 것"이라며 "저의 정치적 스승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해준 장세환 후보에게도 정치적 신의를 지키고자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장세환 후보를 더 큰 정치인으로 만들어가는 일야말로 앞으로 전북발전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며 "압도적인 승리로 국민 위에 오만하게 군림하는 새누리당 정권을 몰아낼 수 있도록 애정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장세환 후보의 공동선거대책 본부장을 맡기로 했다.

【특별 취재반

### 녹색당, 다음달 2일 한옥마을 서 '동물권 캠페인' 전개

녹색당은 다음달 2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전주한옥마을에서 동물권을 위한 캠페인 전개한다.

인간 황윤을 판다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페인은 녹색당 비례대표 1번 예정자가 퍼포먼스를 통해 억압받는 동물들의 고통을 형상화 한다.

녹색당은 대형마트 코너의 비좁은 우리에서 동물들이 판매되는 현실을 비판하며 이번 총선에서 동물 판매업 규제 정책을 제시했다. 지난 1월에는 '동물권선거운동본부'를 출범시킨후 동물권 정책을 발표

하며 동물보호단체들과 정책간담회와 정책 협약을 맺어왔다.

녹색당 관계자는 "녹색당은 지난 2015년 9월 12일 정책 당대회를 열어 당원들과 함께 총선 공약을 준비해 왔고 지난 3월 3일부터 전주 송남문 광장 전북대, 진안시장, 원광대학 등 정당 정책을 알리는데 주력했다"면서 "녹색당이 강세를 보였던 탈핵, 탈토건, 동물권 등을 통해 경제적 부의 공정한 배분과 보편적 복지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특별 취재반

### 도의회 교육위 누리과정 관심 촉구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양용모 위원장은 누리과정에 대한 각 정당의 관심을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2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정책 이슈로 부각되지 않고 있어 답답함을 감출수 없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무상교육 등 주요 교육의제가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으로 공론화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선거는 선거일 하루만의 이벤트가 아니라 국민의 현안을 해결하는 민의수렴의 장이기 때문에 누리과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해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안호영 후보, '행복한 완주무장 시대 열겠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는 24일 오후 2시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완주 진, 무, 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정책패러다임과 미래비전으로 승부하는 정책선거에 앞장서 복지 으뜸, 민생 으뜸, 도농상생 으뜸, 행복 완주무장 시대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 후보는 "완주진안무주장수의 유권자들과 더불어민주당의 선배 정치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경선승리에 자만하지 않고 더불어 민주당의 승리와 지역주민 모두의 승리를 위한다는 각오로 본선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함께 안 후보는 "새로운 정책패러다임과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선거로 승부하겠다"며 ▲동서횡단철도 착공 및 KTX 혁신역사 신설, ▲농산어촌만 65세 이상 버스무료 및 4군통합 버스공영제 등의 핵심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취재반

### 임정엽 후보, '겸손한 자세로 선거에 임하겠다'

국민의당 임정엽 국회의원 후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의 막을 여는 24일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첫번째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임 후보는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더욱 겸손한 자세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과분한 애정을 주시는 지역민들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로컬푸드 성공신화를 무진장으로 확대 발전시켜 완주진장을 '로컬푸드 수도'로 육성하고 완주진장 주민 모두 잘사는 '사회경제연대의 1번지'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임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당당한 선거운동을 펼치겠다"며 "클린 선거운동의 아이콘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특별 취재반

### 정현을 익산시장 후보, 시민 이동권 지원 약속

정현을 국민의당 익산시장 후보는 익산시민의 건강과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종합적인 환경개선이 절실하며 '대중교통분야 혁신사업'을 공약했다.

정 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로율이 증가하고 자가 차량이 많아질수록 주차, 공해, 안전사고, 운송부족 등의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며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익산시 어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종합적인 대중교통 혁신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와 관련하여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도입, 버스승강장 현대화사업', 등 가장 기초적이지만 치송위로 밀려났던 민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익산시민들이 불편부터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 4.13 총선 RUN·RUN·RUN

#### 정동영 후보, 공영화물주차장·스포츠 타운 건립 제시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 후보(전주방)는 '방치된 전주 동북부권에 호반 최대 공영 화물차 주차장과 생활 스포츠타운 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 후보는 "전주가 서남쪽으로 팽창하는 동안 동북부권은 낙후됐다. 대한민국 도청소재지 중 역 뒤에서 농사만 짓는 곳은 전주뿐이다"라고 진단하고, "전주역 동쪽에 물류센터와 호반 최대 공영 화물차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또 "노인복지 소외지역인 호성동 조촌·동산동 지역에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도시 발전에 장애가 되는 송진동 전마지구 예비군데도 이정도 건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반

#### 김광수 후보, '낙후된 전북 개선해야'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 후보(전주갑)는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개혁과 함께 대안정당이 존재해야 경쟁하고 상상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에서 국민의당을 선택했다"며 "우리 세대의 지금부터,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낙후 전북'이라는 글자가 더 이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과제이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어 "타 지역 예산 증가율이 10%가 넘고, 최소한 4~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을 때 전북의 예산 증가율은 고작 0.7%라는 사실을 도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며 "사정이 이렇다하더라도 많은 정치인들이 전북의 예산을 가져오는데 역력한 공을 세웠다고 저마나 앞 다퉈 공치사에 나서고 있으니 이어말로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했다.

그는"예산 증가율이 전국 최하위에 그치고 타 지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성 정치인들보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오겠다고 맹무세처럼 허언을 일삼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도민들을 속이지 말아야 하고, 먼저 머리 숙여 사죄부터 하는 게 정치인의 기본 자세"라고 했다.

【특별 취재반

#### 박종길 후보, '초심 잃지 않고 변화 실천 하겠다'

새누리당 박종길 국회의원 익산을 후보는 24일 오전 9시30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첫 번째로 등록을 마치고 20대 국회의원 후보로서 정치 안에 들어가 일사리를 만들어 경제도 살리고 또 그것에 더 잡아서 더 좋은 대한민국 익산의 꿈을 반드시 만드는데 보탬이 되어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고 "초심을 잃지 않고 변화를 실천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종길 후보는 "이 자리에서 △농 생명 식품 산업의 거점 도시로 익산을 만들기 △교동물류의 중심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의 거점도시 육성 △글로벌 컨벤션 센터유지로 레저와 비즈니스가 복합된 컨벤션 센터 개발 등을 실천하겠다고 공약했다.

【특별 취재반

#### 김무성, '옥새투쟁' 선언 후 '부산 첩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일 유승민 이재오 의원 등 5개 지역구에 대한 무공천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직후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으로 향했다.

김 대표는 이른바 '옥새 투쟁'을 선언하며 후보등록 마감 일인 25일까지 최고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적어도 25일까지 상경하지 않고 지역구인 부산에 머물러 첩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유승민 이재오 의원을 컷오프 시키고 친박계 후보를 찾아 넣은 전국 5개 선거구 대해 당 대표의 직인을 찍어주지 않는 이른바 옥새 투쟁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선언했다.

김 대표가 이들 5개 지역 공천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총선에서 5석을 잃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집권여당 대표로서는 초유의 결정을 한 셈이다.

김 대표는 부산 지택에 머물면서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첩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친박계 지도부는 김 대표가 최소한의 상의도 없이 옥새 투쟁을 실행에 옮긴데 대해 당측근과 분노가 교차하며 긴급 최고위 소집을 요구했다.

【이성주기자

#### 더민주 "새누리 박근혜 사당 임을 천명한 것"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유승민 의원이 공천 심사에 반발, 결국 새누리당을 탈당한 데 대해 "새누리당이 박근혜 사당(私黨)임을 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하는 유 의원에겐 공천을 주지않을 것이라는 점은 처음부터 다 아는 일이었다"며 "계 발표 나가게 하겠다고 당적변경 마감시한까지 결정을 미룬 새누리당의 행태는 그 치졸함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유 의원의 탈당으로 막을 내린 이번 새누리당 공천파동은 국민은 인종에도 없는 박근혜 정권의 후안무치함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렇게 하면 정말 국민들이 유 의원을 내쫓은 게 아니라 스스로 나갔다고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새누리당은 국민들을 완전히 바보로 여긴 것"이라며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고 우롱한 새누리당에게 붙어갈 것은 4·13총선에서의 국민 심판판"이라고 경고했다.

【이성주기자